



문화매일신문



제1444호

2023/8/23/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결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실현할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본격 추진

약자동행 기술개발 기업 공모(23.8.22~9.22)··· 디지털·정보통신 등 기술로 불편 사항 해소

서울시가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디지털, 정보통신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할 기업 공모에 나선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가 생겨나고 계층별 기술 적용 수준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약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반면 약자를 위한 기술은 작은 시장 규모와 제한된 자금으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또한 기술은 있으나 경제성이 낮아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고 제품 상용화뿐만 아니라 수요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약자 기술을 확대하고 기술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성을 공감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약자의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찾기 위하여 시민공모를 진행하고 6개의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했다.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시민공모에는 약자 문제 개선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기업 등이 참여했으며,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190여 개의 불편 과제 중 6개의 우선 해결과제를 선정했다.

이동약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독거인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구축하는 돌봄 기술개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및 서비스 개발 등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1년간 공공기관에서의 실증을 지원한다. 또한 약자 기업의 영세성 및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실증기관 매칭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지원 시 희망 실증기관을 3개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시는 희망 기관을 포함한 실증가능 기관을 대상으로 약자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증기관 매칭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약자 기술개발 기업과 수요기관과 공공기관 등 약자 기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나는 '기술동행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약자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도모한다. 11월에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약자 기술을 홍보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기술 진보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계층 간 기술격차 확대로 사회적 약자는 기술이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업대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 필요 기술이 약자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 제약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숲속의 산성도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가을 추억 만드세요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 운영 시작



경기도가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전통문화체험, 생태체험, 문화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마당'을 주제로 9월 말까지 추석을 포함한 매주 토요일 요일과 휴일에 열린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조선시대의 수목화를 그려볼 수 있는 '모두의 조선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급제도 해보는 '남한산성 별시' ▲다도 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하는 '다담'으로 구성된다.

숲생태학교는 ▲숲 해설 전문가와 함께 가을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들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 ▲산성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컬러링 북을 활용해 알아보고 솔방울 팔찌, 낙엽다발 만들기 체험으로 이뤄진다.

연희마당은 ▲전통의 기운을 담은 무예를 만나보는 '전통무예 시연' ▲전통 속에 이어진 신명 나는 춤과 소리의 무형유산 '농악단 공연' ▲발라드, 퓨전국악, 어쿠스틱 등 다양한 음악의 선율을 만나는 '버싱킹 공연'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채를 눈으로 즐기는 '한복 패션쇼' ▲명사를 통해 인식과 시야의 폭을 넓히는 '인사와의 만남'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밤의 산성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에서는 그림자 포토존, 라인조명 등이 추석 기간에 펼쳐져 가을 남한산성을 색채, 선율,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우천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각의 프로그램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다담의 경우 다식을 만들고 차와 함께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행궁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때 참가 티켓을 함께 구입하면 된다.

김천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도 체험해보고 멋진 가을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올해 청년농어업기업까지 확대해 30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디자인을 통해 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부터 183개사를 지원한 결과, 기업 매출액이 평균 40% 이상 늘는 등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사업 모집 대상은 전남지역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 인증기업, 청년 농어업기업이다. 올해는 청년 자립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농어업기업까지 확대했다.

공모 분야는 2개로 ▲이미 개발된 브랜드를 수출 시장에 맞게 개선을 돕는 수출 지원형 ▲신규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일반형이다.

전남도는 참여 기업의 사업 필요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30개사를 선정하고 2천800만 원 내의 (자부담 10%)로 개발 성과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8월 30일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디자인을 통해 도내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브랜드·디자인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청 포스아트 레플리카 특별전 개막

포스코 '철 만남 예술, 옛 그림과의 대화' 경북도청 특별전 열어



경북도와 포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포스아트 레플리카 특별전 '철 만남 예술, 옛 그림과의 대화' 개막식이 22일 경북도청 동관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 및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전시는 최양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해 포항제철 냉

천 범람 피해 당시 경북도의 조기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경북도청 특별전을 마련했으며, 8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포스아트 특별전은 금강산도, 인왕제색도 등 조선 회화 걸작 56점을 포스코제 친환경 철제 강판과 여러 핵심 기술로 구현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접촉하며 오감으로 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방식

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서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는 "1년 전 냉천 범람 시 물에 잠긴 포항제철소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었다는데, 경북도에서 대형 방사포 2대 및 복구작업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철로 구현된 한국의 명화들을 감상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기술력과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 들머리-보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머리보내기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도,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머리,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해남보유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암동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유원지, 영암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목이생화전시관



경북도의회'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착수보고회 개최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용역 착수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8월 17일 문경 STX리조트 소강의실에서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의 연구책임 맡고 있는 송중은 센터장(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은 "경상북도의 시도 기준 14곳 경계지역은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이 미흡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발 잠재지역을 파악하여 주민친화적 개발정책연구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연구회 대표인 김홍구 의원은 "시도 경계지역, 시 군경계지역의 공동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지역간의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역

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김홍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선희, 최병근, 김경숙, 박규탁, 임병하, 박창욱, 김창기, 배진석, 권광택, 손희권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본 연구는 11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지역작가 창작여건 개선·문화예술 부흥 지원할 터"

18일, '故 이견희 컬렉션' 한국 명화전 특별전시 기획 개막식 참석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18일 오후 3시 전남도립미술관에서 가진 '故 이견희 컬렉션' 한국 명화전 특별전시 기획 개막식에 참석했다.

서동욱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전남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에 큰 힘이 되어줄 '故 이견희 컬렉션' 한국 명화전 특별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난 2021년 이견희 컬렉션을 놓친 도민들에게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별전을 준비한 도립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번 특별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의 소장품도 함께 전시해 수도권에 집중된 예술 작품들을 지역에서도 관람할 수 있어 예술은 특정한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컬렉션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전남 출신

거장인 김환기(신안) 화백과 오지호(화순), 천경자(고흥), 허백련(진도) 화백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욱 의장은 "도립미술관은 지역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리움미술관 순회전을 유치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히 남도미술의 미래를 밝히고 한국 미술사를 대표할 예술인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지역 작가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작가의 육성에 힘쓰고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한국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의회도 지역 작가들의 창작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부산시의회, 시모노세키에서 조선통신사 사행

부산의 외교적 위상 높이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



부산광역시의회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일본 시모노세키 시에서 조선통신사 사행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양 도시 우호 증진 활동을 펼쳤다.

부산광역시의회 대표단에는 안성민 의장과 최영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강

철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시모노세키는 400여 년 전 조선통신사가 일본 내륙에 첫발을 내디딘 곳으로 교동의 요충지라는 장점을 살려 조선과의 교류를 주도했던 거점이었다. 부산과 시모노세키는 1976년에는 자매결연 협정

을 맺었고 페리 운항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사업을 지속해 왔다.

부산광역시의회 대표단은 19일, 부산예술단 130여 명이 참여한 조선통신사 사행을 시작으로 시모노세키 바칸축제에 문을 열었다. 안성민 의장은 정사 자격으로 시내 1.2km 구간을 순회하는 행렬단을 인솔했으며 미리 준비한 친서를 전달하고 양 도시 우호증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안 의장은 친서를 통해 "성신교린의 상징이자 그 자체로 찬란한 문화교류의 대장정인 조선통신사의 정신은 오늘날 인류 전체가 추앙하고 계승해야 할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 한일 양국이 정치외교적 문제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소원할 수밖에 없었지만 2023년 올해 문화교류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둘째 날인 20일, 대표단은 시모노세키 시민회관에서 양 도시 문화예술인 교류 공연을 마련하고 우의를 다지는 한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을 쏟았다. 마에다신타로 시모노세키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50여 명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

를 당부했다. 또 축제의 대단원인 헤이케 소오도리 대회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참가해 시모노세키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시선을 끌었다.

정사로서 이번 시모노세키 조선통신사 사행을 이끈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조선통신사 사행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부산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기를 기대하고 부산과 시모노세키시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이 더욱 가까워지고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중요한 역사적 자산인 조선통신사를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영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사행이 정치적인 이슈를 초월한 양국의 문화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이 되는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강철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장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조선통신사의 의의는 지구촌 문화올림픽의 세계박람회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만큼 이번 사행을 통해 부산의 오랜 문화적 역량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희태/기자



허훈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메이크' 초거대AI·로봇 기술 현장방문 진행

네이버 1784 사옥 방문해 초거대AI기술, 로봇,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융합 현장 둘러보고 업계 건의사항 청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메이크(허훈 대표의원(국민의힘, 양천2))가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21일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했다.

먼저, 사옥 내 마련된 세미나룸에서 네이버가 개발 중인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AI '하이퍼로바X'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융합해 자체 개발한 로봇 시스템인 '아크(Arc)' 시스템과 현재 연구 및 고도화 중에 있는 브레인리스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QR체크인 활용 등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와 다양한 협업을 이어온 만큼 향후에도 정책 입안의 간극이 되는 빅데이터 분석, AI 기반 인프라 구축 등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서 네이버가 개발 중인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설계된 1784 사옥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와 양팔로봇 엠비텍스, 군단로봇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직 이동시

키는 로보포트, 실제 세상을 디지털 환경에 3차원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기술을 시연하고 상호화를 위한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허 의원은 "세계 각국이 데이터 주권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 초거대AI 생태계 확보는 기술 중속을 탈피하고 국가안보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내 혁신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 역시 입법·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서울메이크와 서울혁신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함께했다.

최광수/기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 "소기업·소상공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권기훈 의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

권기훈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3)은 8월 1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동지점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민생경제 일선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보증상담을 하는 등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활약했다.

이번 행사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해 됐다.

대구신보 동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 현장상담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의 고충과 민생경제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권기훈 의원을 비롯해 황병욱 대구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활약한 권기훈 의원은 동구지역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과 지점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지점을 방문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신용보증

현장 상담업무를 통해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권기훈 의원과 현장상담을 진행한 대구시 동구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대구신보의 보증지원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자금별 융자한도', '이자보전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권기훈 의원은 이들의 건의사항을 공감하며, "지역경제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기훈 의원은 "이번 대구신보 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를 통해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신보와 협력해 대구가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신보는 1996년 설립된 이래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

반자로서,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해 오고 있으며, 올



해 7월까지 누적 566,975건, 14조 3,474억원의 보증공급을 실시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민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기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 치 부: 태선 (112)	문 화 부: 태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 회 부: 태선 (113)	부 동 산 부: 태선 (117)
	경 제 부: 태선 (114)	오 피 니 언 부: 태선 (118)
	스 포 츠 부: 태선 (115)	지 방 부: 태선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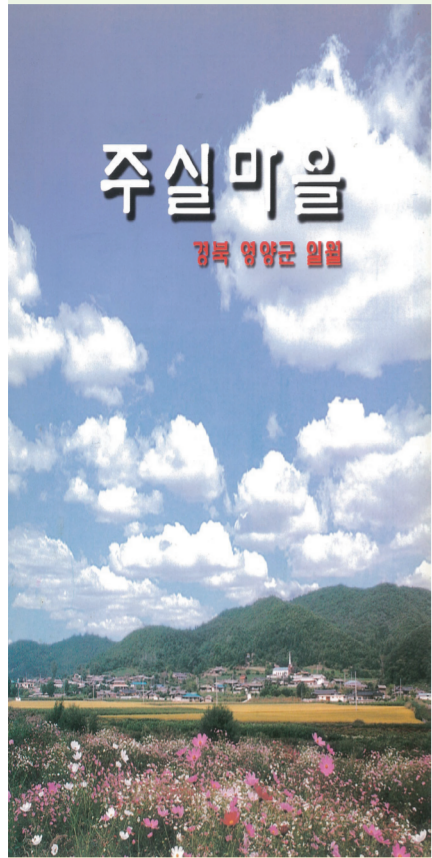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환(趙錫換) 박사’ 주실마을, 세계적 기독교와 유교문화 관광상품 마을로

‘주실마을 관광자연자원을 이용한 미래관광 상품개발’ ‘지구촌 다니며 글로벌 관광개발 벤치마킹으로 새로운을 연구하는 석학자’



주실마을
경북 영양군 일월



조선환 박사는 1945년 경북 영양 일월 주곡에서 태어나 영양중, 영양고, 성결대학교 경영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취득했으며, 이명박대통령 훈장, 김대중 대통령 국민포장을 획득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숙명여대 강사, 평택대 경상학부 교수와 제12대 성결대학교 재단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최초로 미국 UCLA Lowrance W.Erickson 교수로부터 Typewriting기술개발과 Education Method에 관해 사사를 받았다.

현재 그는 한국정보관리협회 회장, 국가기술표준원 국가 컴퓨터자판 전문위원회 위원장,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기계화정보화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 컴퓨터 자판 공동 연구와 한겨레 통일 자판 개발 ▶남북 문서 실무 양성과정 교재 공동개발 ▶모바일폰(천지인) 한글표준자판 및 접속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학구파로 정평이 나있는 분이다.

이러한 스펙을 가진 그는 보편불수룩 매력에 끌려오는 ‘볼매’라 불려 주고 싶을 정도로 젊은사람들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79세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열정을 지닌데다 그의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를 비롯한 각종 역사에 대한 해박함에는 절로 고개가 수그러진다.

특히, 남북이 분단돼, 78년의 비통한 역사속에서도 남북간 평화의 키워드 전도사 역에 혼신을 기울여 오고 있는 그의 이런 노력은 후세를 살아가는 모 든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이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조선환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특집으로 집중 취재했다.

▲ 주실마을은 구한말 들어 온 개화사상의 물결을 지혜롭게 받아 순응한 선구자 마을이다.

이곳 주실마을은 ‘육지 속의 섬’이라 불려지는 영양군 일월면에 위치한 이조시대 한양 조씨의 본산이요 대한민국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 생가가 위치해 전국 수많은 문학애호가들이 즐겨 찾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선비들은 일찍 개화사상을 수용했고, 1905년, 서양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여타지역과 달리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마을이다.

이런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조박사는 이 마을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지리산의 ‘선비문화원’은 물론, 국외로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 곡부시와 중동 이스라엘 에집트를 방문, 구약성서의 출애굽 탈출의 여정을 벤치마킹 했고, 스페인의 ‘에스펠레트(Espelete)’고 추축제, 미국의 ‘미시시피(Mississippi)’페스티벌 농업축제 등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

서 이를 ‘주실마을 관광상품화’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이곳 주실마을을 세계속에 우뚝 솟는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가 상존하는 관광상품지역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또 그는 (사)한국정보관리협회 회장으로써 경북 출신 남북학자들이 함께 만든 평화의 키보드를 위해 지난 6.15평화공동선언으로 평화무드가 한창이던 시기에 남북이 갈려 왔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 자모음 맞춤법과 순서와 컴퓨터 글자판 키판 자모음 순서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북한을 방문해 그곳 학자들과 한겨레통일표준자판을 갖는 단일기 발명과 남북이 규정을 통일한 민간자격 통일컴퓨터드라이브 자격을 함께 시행하자고 제안, 합의를 도출시키는 등 그의 남다른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 조선환 박사, 영양주실마을을 세계적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 관광상품 마을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헌신적 노력이다.

잘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유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해온 실학마을로 불려져 온, 이곳 영양군 일월면의 주실마을이다.

안동의 하회마을은 풍산 류씨가 중심이 돼, 600여년간 명맥을 이어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국내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오고 있는 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특히 이곳의 선유불꽃놀이 불꽃놀이 축제는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하회마을에서 행해지는 양반놀이 중 하나인 전통불꽃놀이로서 전국 유일의 안동 하회마을 특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이곳 영양의 주실마을은 전통마을로써 400여년 전, 한양 조씨의 집성촌으로 조선 중기조광조의 후손인 조선 선생이 사화를 피해 정착하면서 주실마을로 불려지는 역사적인 곳으로 실학자들의 교류와 개화, 개혁으로 이어진 진취적인 문화를 간직한 매우 유서 깊은 마을이지만 뚜렷한 관광상품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주실마을을 조선환 박사는 반드시 세계적인 기독교와 유교문화의 온산자인 새로운 관광상품지역인 주실마을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 2000년 당시, 정부가 이곳 마을 전체를 전통마을로 단장해 유교문화 관광마을로 바뀌게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외형만 바뀌었을 뿐 정작 필요한 이곳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소홀히 해와, 안동 하회전통마을의 고부가가치와는 달리 이곳 전통 주실마을은 지금 현재까지도 마땅한 관광상품 하나 만들

어 가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까움이 짝이 없다.

이에 그는 지난 1999년 5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석학들을 영양으로 초빙, 영양군을 소개하며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적 가치와 관광상품의 호감도를 확인, 그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그의 주실마을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은 실로 눈물겹다.

▲ 조선환 박사의 열정의 열매들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그의 노력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빛을 발해, 조선환 박사가 꿈꿔 온,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 공존 관광상품화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도창 영양군수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그의 꿈이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

특히, 오 군수는 “조 박사님이 이곳 영양 출신이란 것이 무한 자랑스럽다”면서, 지난 2022년, 조박사의 영양취임고택을 영양군이 용역보고서 문화재 지정 노력을 담은 174쪽의 ‘영양취임고택(사건 자료 1391장, 그림/도면84개를 포함한 책자)’을 발간하는 등 영양군의 취임고택 경상북도 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도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곳 주실마을을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 관광상품지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조박사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사색의 각오로 뛰어왔다.

이런 그의 노력들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직 이 일대 대한 일부 중앙정부 관리자들의 무관심과 내 것이 아니라는 안일한 경직된 사고로 인해 큰 장벽에 부딪혀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나, 그는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 꼭 이곳 주실마을을 기독교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이 공존하는 관광상품지로 만들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必死(必死), 必生(必生)”란 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란 각오로 열정을 다해 오고 있다.

▲ 주실마을과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환박사의 ‘취임고택’을 조망하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 조성된 주실마을은 하늘에서 본 마을의 모양이 배모양을 띠고 있어 주실(主室) 또는 주곡(主谷)으로 불려진 마을로 이곳에는 2개의 총택이 있다.

하나는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 생가가 있는 조선 인조 때 조전의 2남인 조정형이 지은 경북 기념물 제27호인 호은총택(壺隱宗宅)

이고, 다른 하나는 경북 민속자료 제24호로 지정된 조선 숙종 때 홍문관 교리·승정원 우부승지를 지낸 조덕린의 집인 옥천총택(玉川宗宅)이다. 이외, 이곳에는 보물급 문화재인 월록서당(경북유형문화재 72호), 만곡정사(경북무형문화재 제341호) 등이 있다.

이런 주실마을에 조 박사는 조선 영조때인 1745년 신축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6년 조박사가 아들 매업, 호봉공의 7대손으로 취임유교(桴巖遺稿)를 남길 만큼 당대의 대학자로 알려진

조부인 취임공(1647~1893)의 호를 따, 조부의 학자적 명성에 걸맞는 취임고택으로 이름지었다.

이후 조 박사는 이 취임고택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경상북도 등, 각종을 분주하게 다니면서 노력을 기울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도창 영양군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마침내 문화재 지정 절차가 완료돼, 이제 9월중 문화재지정 인증서를 받게 되는 위치에 와있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다만, 문화재지정특에서 요구사항이 취임고택은 현재 주실마을을 고택과 조합이 되지 않기에 그 지정된 고택명을 취임고택에서 등기된 조선환 박사의 자제분인 ‘조명결 기옥’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명명하기로 하고 이제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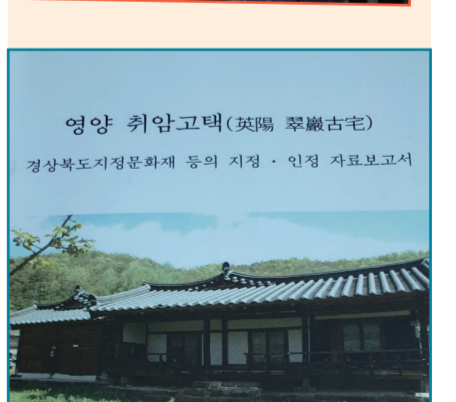
▲ 한길목심으로 걸여온, 조박사의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오다.

조박사는 이곳 영양주실마을이 기독교문화와 유교문화 관광상품화 지역으로 된다면 그가 꿈꿔 온, 일들을 추진해 이곳으로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와, 보고, 듣고, 즐기고, 먹고, 느끼는 오감만족의 힐링 영양 관광상품화 마을을 만드는 진솔한 꿈을 갖고 있다.

이 꿈이 실현되면, 주실마을은 전체가 국보급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이므로 역사적 관광자원을 활용, 굳은 물론, 대외적인 관광객 유치와 학술심포지움 등 주실마을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활동은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곳에 영양주실 한글기계화부분인 조선환타자기 박물관(기독교 유교박물관-조간영군수 기념관포함), 전국 유명 영양고추를 이용한 수제 고추장 통일키보드 제작공장을 세워, 영양군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제는 조 박사가 꿈꾸는 주실마을의 ‘기독교 문화와 유교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집념의 노력과 아낌없는 고향사랑이 순조롭게 이뤄져, 영양군 주실마을이 유래 없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관광상품지역으로 합작해 도약해 그의 집념이 결실의 빛을 발하므로써, 이곳 영양은 조 박사의 꿈이 영양군의 미래로 활짝 꽃피워, 미래먹거리는 물론, 영양군 관광상품지역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속한 추진 요청

경기도 경제부지사 -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로 이전을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늦춰지고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8월 18일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의회, 파주시청,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교육활동을 계획·평가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2023 파주이룸학교 선정결과

심의 등의 사업 보고와 이에 대한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조성환 의원은 "정책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요 운영 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파주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파주시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참여기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 강조

경기도 경제부지사 -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기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도민의 건강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대응체계 강화 및 도내 지역 간 균형적인 의료 발전 도모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남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동북부권 공공의

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의료원 설립 타당성 확보 시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했고,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 신속한 결정 촉구

김동연, 김포시 의견을 담은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18일 대광위 제출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21일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선안 중 검토대상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

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경기이룸학교(공모) 안전 심의' 진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8월 21일(화) '2023광주지역교육협력 2차 운영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2023년 경기이룸학교 공모(성장형, 창조형)'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 광주 경기이룸학교 공모에 따른 성장형(학생맞춤형) 25건, 성장형(학교 교육과정 연계형) 3건, 창조형 1건에 대한 최종 심의가 진행됐다.

'2023년 경기이룸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이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운영자의 공간에서 학생 맞춤형 활동이 추진되는 '성장형(학생맞춤형)', 학교 내 공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는 '성장형(학교 교육과정 연계형)' 및 지역 내 대학, 기관 등 창업·디지털 등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창조형'으로 구성된다.

유영두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운영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에 감사하다"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광주 경기이룸학교가 잘 운영되어 광주시 지역사회의 자원과 학교가 잘 연계되어 목표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023년 광주 이룸학교 공모는 9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여 이룸학교 약정서 체결, 참여 학생 모집, 이룸학교별 수업을 시작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찾아 격려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찾아 격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집행부를 격려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은 경기도청 500여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결성한 다섯 개의 노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작지만 의미있는 공간이다.

이날 이용호의원과 김선영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황미영위원장과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기도 노동국에 사무실 집기 마련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노동정책과의 업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9월 8일(금)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노사민정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3. 9. 8.(금) 14:00 장소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 주 최 경기도-경기도의회

주 장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부담	시간	과제	순영	주요 내용
	14:00	14:05	5'	개회인사 박현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책팀장
				영준원 경기도의회 의원
	14:05	14:15	10'	주사 김현영 경기도지사
				김현우 경기도의회 국민행복 대표
				김민준 한국노동총연맹 경기지역본부 대표
				김준호 경기경제진흥원장
	14:15	14:20	5'	사건발표 박정호 한국노동연구원 교수 소장
				장원 이종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14:20	14:50	30'	토론 1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토론 2 김정일 경기도노동정책과 과장
				토론 3 이순광 한국노동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토론 4 김관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15:40	16:00	20'	발언마당



수원이 함께 한다, '힘내라 수원의 청년!'

지역 청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들



수원시는 청년 지원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59개에 달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해 총 14개 부서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 중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비 지원 사업은 10여개에 달한다.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자립을 지원하는 수원시의 실비 지원 정책들을 소개한다.

◇주거 어려움 함께 해소한다

수원시의 청년 지원사업 중에는 주거비 부담을 느낄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주거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버겁지만, 사회에 막 첫 발을 댄 청년들에게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홀로 사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과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수원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독자적으로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19~34세 청년이 소득기준과 임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임차료의 1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하다. 매년 3월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뒤 100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함께 돕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진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한시적 국비 사업도 수원시가 함께 지원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기준과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의 청년독립가구에 월 임차료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를 시작해 지난 7월까지 9개월간 총 9600여명에게 월세가 지원됐다.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돼 현재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부모와 따로 주거급여 혜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대상인 저소득 가구에 속한 미혼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일 가구에 속했다는 이유로 가구원인 청년에게는 주거급여 혜택이 미미하던 것을 지

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도 한다.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걱정을 덜어주고, 기본소득을 지원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책도 아낌이 없다.

▲꿈을 위한 디딤돌 놓기, '대학생 장학금 지원'

수원의 청년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 주는 우수장학금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위한 희망장학금, 이공계 학과 재학생을 위한 과학장학금,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위한 행복장학금 등 분야를 세분화해 지원의 폭이 넓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6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을 덜 수 있다. 올해 270여명이 지원을 받아 미래를 위한 기반을 함께 다지고 있다.

▲지역 청년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본소득'

수원지역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로 제한된다.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받는다. 생활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20대 초중반 청년 1만3천여명이 매 분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수원이 지원하는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기발만한 언덕이 되어주는 역할도 수원이 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이들이 공공의 따뜻한 지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위해 최소한의 기초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퇴소한 해에 1천만원, 이듬해에 5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자립수당의 경우 최초에 2년을 지원하던 것에서 현재 5년간 지원으로 지원기간을 늘린 것은 물론 금액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에서는 약 200여명의 대상자들이 자립수당을 활용해 당당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청년의 미래는 수원의 미래"라며 "수원의 청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수원시가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고 송전철탑' 문제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한 보낸 데 이어 전화통화도

21일 GH의 송전철탑 이설 강행에 대한 중재 요청 서한 보내고 전화도 걸어 부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오전 용인에 인접한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시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GH가 진행하는 수원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는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일대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용인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GH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용인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의 원만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했던 권고 내용과 현재의 상황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GH가 이설공사

를 진행할 때 용인 성북동에서 송전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용인특례시가 요청했음에도 GH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9월에 이설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용인 성북동 일대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대 현수막 게시, 반대 서명부 작성 등을 통해 집단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사업 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용인특례시장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고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등과 울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등 소재 해모리 아파트에서 이설 민원이 제기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고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고산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고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고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범상/기자

고양시 고양동의 '태민기획' 후원자들의 뜻을 알리는 홍보판 지원



태민기획 대표 박종채는 "고양동의 여

러 후원자분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알리는 홍보판을 제작하여 무료 지원함으로써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제가 하는 지원이 후원 활동을 알리는 동시에 참여를 독려하는 뜻깊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일 고양동장은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홍보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더 따뜻한 고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2023 추석맞이 화성시 사회적약자 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화성시가 오는 9월 10일 '2023 추석맞이 사회적약자 자동차 안전점검 행사'를 이마트 동탄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전문정비업 단체인 카포스 화성시 동부지회가 주최·주관하며, 화성시 및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관내 교통약자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자동차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행사에서 160여 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라이닝, 엔진, 타이어,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으로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 후원을 할 예정이다. 화성시자원봉사단체에서는 이미용, 발마사지, 수지침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태복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무상점검 행사를 통해 차량점검이 어려운 소외계층인 장애인 차량과 자원봉사자 차량에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성시민의 안전한 귀성길과 자동차문화 조성을 위해 재능기부에 함께해주시는 카포스 화성시 동부지회 회원분들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성남시 '서현역 사고' 31명 정신적 트라우마...84차례 심리상담

市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지속 추진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31명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84차례의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현역 사고(8.3) 발생 직후인 8월 4일부터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신흥동 수정구보건소 5층)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8.31)해 운영 중인 가운데 20일까지 17일간의 심리상담 지원자와 건수를 이같이 집계했다.

이 기간,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을 받은 이들(31명)은 대면(1건), 또는 전화(83건)로 불안과 우울을 여러 차례 호소해 한 사람당 평균 2~3번, 많게는 13번의 심리지원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직접 사건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은 이는 23명, 간접적으로 소식을 접한 뒤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는 8명이다.

이 중 30명은 정신건강과 일상생활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임상 인상 척도(CGI-S)가 총 7개 단계 중에서 '경도(3단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맞춤형 심리적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다른 1명은 전반적 임상 인상 척도가 '경도-중등도(4단계)'로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시는 이날 말일로 예정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비상근무 체제 종료 후에도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불안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시승경 50주년 기념 홍보영상, 관내 학교 교육에 활용

최대호 안양시장 "영광스러운 50년 지나 미래 100년 향한 힘찬 도약"

안양시의 시 승격 50주년 기념 종합홍보영상이 관내 학교의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종합홍보영상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2024 우리고장 안양'의 영상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을 받는 등 관내 기관 곳곳에서 교육자료 활용 요청을 받고 있다.

또 관내 4개 대학에서도 '안양학' 강의의 2학기 교육자료로 홍보영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총 5분 49초 길이의 종합홍보영상은 지난 5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안양의 과거와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을 향해 더 높이 비상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53년간 안양에 거주한 시민, 청

년 부부, 안양박물관 학예팀장, FC안양 서포터즈, 청년 기업가 등 다양한 시민 인터뷰가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영상을 통해 안양에 대해 더 이해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며 "과거의 영광스러운 50년을 지나 미래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자랑스러운 안양의 50년 시민과 함께 성장합니다.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코로나 후 첫 국제 정기선 '비상'

전남도, 베트남 퍼시픽항공 등과 협약...10월부터 무안-나트랑 운항



오는 10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 정기노선 운항이 시작된다. 코로나 이후 첫 국제 정기선으로 향후 중국, 일본 등 노선 다변화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이 비상하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무안군, 베트남 퍼시픽항공, 한국공항공사와 '무안-베트남 나트랑 간 국제 정기 노선 취항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웅연 당 끄영 퍼시픽항공 부사장, 신용구 한국공항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나트랑

간 안정적 항공기 운항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전남 관광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무안-나트랑 노선은 코로나 이후 전세기만 취항했으나, 이날 협약을 통해 정기노선으로 전환, 10월 말부터 주 2회(화·토 출발) 운항에 나선다.

퍼시픽항공은 국영 베트남항공의 자회사다. 1991년 설립돼 올해 무안국제공항과 나트랑, 달랏, 다낭, 호치민 등 베트남 주요 노선을 171항차 운항했다. 전남도는 나트랑 노선의 성공적 운항을 계기로 퍼시픽항공과 정기노선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퍼시픽항공 정기노선 취항을 통해 두 나라 국민들이 전남과 베트남을 편리하게 오가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선 유치를 계기로 현재 논의 중인 중국, 일본 등 국제 정기편 운항이 속도를 내 무안국제공항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항공사의 코로나 이후 무안국제공항 첫 정기노선 운항은 그동안 전남도가 현지 관광설명회,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국제 정기편 유치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을 건의,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으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관광객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전남, 전북, 광주, 제주를 여행할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베트남 호치민과 나트랑을 방문해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전남의 다양한 여행상품 판촉 활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관광객 1천200여 명이 전세기로 전남을 찾았으며, 추석 연휴와 단풍철에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입국이 기대되며 이번 정기선 취항으로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지금청년과 미리청년이 만나는 '미리청년교실' 큰 호응

지금청년(18~45세)과 미리청년(15~17세) 세대연결 프로젝트 세대공감 이끌어

순천시는 지난 21일 지금 청년들이 신 흥중학교를 찾아가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미리청년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하는 미리청년교실은 지금 청년들이 미래에 청년이 될 청소년인 미리 청년들을 만나 소통과 공감으로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개설됐다.

미리청년교실은 지난 6월 관내 중·고등학교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 선정했으며 미리 청년들이 희망하는 테마를 구성하여 1845청년인재풀에 등록된 지금 청년강사들을 분야별로 매칭해 진행했다.

지금 청년강사들은 1845청년인재풀에 등록된 미리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업 테마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웹툰 작가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바리스타 ▲트레이너 ▲공인기획자 ▲음악가 ▲심리상담사 ▲기자 총 8가지 직업 테마를 주제로 운영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는

지역사회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리 청년들에게는 단순 특강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과 소통을 통해 세대 공감이 함께 이루어져 큰 호응을 끌었다.

순천시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세대와 미래에 청년이 될 청소년이 소통을 통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것"이라며 "지금청년들과 미리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845청년인재풀은 18~45세까지 순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인력풀로 현재까지 120여 명이 등록했으며, 인재풀에 등록된 청년들은 시위원회, 감사, 심사위원 등에 추천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두 번째 '미리청년교실'은 오는 11월에 남산중학교를 찾아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남원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개별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동안 주택의 신축, 파옥, 용도변경 및 지적분할 등 변동분 174호에 대하여 조사했으며 재평가,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

(2023.8.9~8.28)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26일 공시할 계획으로 기간동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무원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스스로 해소하고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약

산 해양치유의 숲, 해양문화치유센터 등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명상, 요가, 해수 족욕 및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은 "바쁜 일상과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 지쳐 있었는데 해양치유 체험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꾸준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므로써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함평군, 제24회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 개최

9월15일~17일 개최...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및 포토존 조성

제24회 함평모악산 꽃무릇 축제가 '꽃무릇 붉은 물결 함평에 깃들다'의 주제로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원에서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함평모악산 꽃무릇 축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꽃무릇 군락지 중 하나인 해보면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며 우리나라 자연경관 100경 중 48경에 선정된 꽃무릇을 활용한 축제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인 만큼 관광객들이 함평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나주시,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된다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개정·시행

나주시는 8월 10일자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보조사업의 계약원가심사 권한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해당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국비 보조사업과 다양한 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 권한이 나주시로 이양돼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계약원가심사는 시청(본청),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행정 절차상 혼란 방지와 하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사 대상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원활한 심사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번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에 맞

춘 직무교육, 계약사례 직원 간 공유를 비롯해 청렴한 원가심사 실천을 다짐하는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안전하게 시공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

발전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폭넓고 다양한지만 현장 위주의 적정하고 타당한 심사를 통해 지자체와 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진도군, 25일 오후 6시 '썸나부네 썸머나이트' 개최

진도군이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진도읍 아리단길 일원에서 '썸나부네 썸머나이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진도 상권 르네상스 '홍나는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도읍 남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5월은 썸나부네'와 7월 '썸나부네 워터파크'의 큰 호응에 힘입어 3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 6월 문을 연 어울림센터(구 우체국)에서 ▲귀신의집 ▲호러퍼레이드 ▲귀신분장 체험 ▲호러 포토존 ▲아트마켓 등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야시장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남량특집으로 귀신의집(귀굴)과 호러퍼레이드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 무더운 여름밤을 날릴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프로그램 우수 참가자에게 당일 행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을 증정해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하

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썸나부네 썸머나이트로 여름밤 막바지 무더위를 날릴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 열어

목포 청소년,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 모색

목포시가 지난 18일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목포 청소년,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목포 청소년 행복시민 성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재 지방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청소년 인구 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자들은 청소년들의 개인 역량을 끌어올려 올바른 시민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 위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여승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국립목포대학교 백지숙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은 백동규 목포시의원, 최해룡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주인철 목포청소년복지성장협의체 위원장, 양세빈 목포시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목포시 아동청소년 팀장이 참여했다.

특히, 목포시청소년참여위원회 양세빈 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은 대상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봐야한다", "목포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도시이기를 바란다"며 청소년 관점에서의 의견을 발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치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머무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원하는 '2023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청소년 참여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목포시와 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청소년 명예동장 구성 및 시의회 상임위원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장흥군, "2023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승리의 역사 재현"

김성 군수 "자랑스런 장흥의 역사를 알리는 축제로 만들 것"

'2023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9월 1일 장흥군 회령진 회령진성과 회진항 일원에서 열린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올해 축제는 '12척의 판옥선! 회령포 시간여행'을 주제로 펼쳐진다.

1일 만선기원봉오제로 막을 올린 축제는 12척 해상퍼레이드,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퍼레이드, 해군 홍보대 식전공연 행사로 이어진다.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은 이순신 장군과 수군, 민초들이 함께 펼치는 거리퍼레이드로,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날 오후 6시에 시작하는 개막식에서는 선조의 교서 전달식, 회령포 결의, 출정식을 통해 명량해전 승리의 역사를 재현한다.

축제 2일차에는 다양한 문화·체육행사가 이어진다.

오후 1시부터 회진항 앞 해상에서는 음면 대항 장흥 회령포 판옥선 노ട്ട기대회를 열어 군민들의 단합을 다지고, 음면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어 주무대에서는 전통무예 시연과 전통예술공연 '봉산탈춤' 공연이 펼쳐진다.

구례군 반달곰 씨름단의 씨름 시범과,

지역민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회령포 가요제'도 이날 오후 개최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이익주 교수와 떠나는 회령포 역사여행', 회령포 골든벨, 청소년 댄스 공연 등 회령포의 역사 교육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1일과 2일 저녁 8시에는 이순신 장군과 지역민의 활약상을 담은 '명량'과 '한산' 특별 영화상영이 계획되어 있다.

축제 기간 중 오후 1시부터는 조선 수군 의상을 입고보고, 당시 무예를 배워 볼 수 있는 '조선수군학교 체험'이 진행된다.

장흥 회령포 역사 전시관, 장흥 의병추모관 운영을 통한 지역 역사 알리기도 나선다.

3일 오후 12시 30분부터는 문화해설사와 회령진성을 들며 역사의 현장감을 탐방하는 '회령진성 역사투어'가 열린다. 김성 장흥군수는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장흥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라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자랑스런 장흥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제19회 정기연주회 "꿈꾸는 항해"

8월 27일 오후 7시, 한국소리의문화전당 연지홀

전통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전북도립 어린이국악관현악단(단장 천선미)이 오는 8월 27일 오후 7시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19회 정기연주회 '꿈꾸는 항해'를 무대에 올린다.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은 전통 예술에 대한 도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2004년 9월 대한민국 최초로 창단했으며, 역량 있는 지휘자와 각 파트 지도교사들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으로 어린이 음악교육의 메카가 되고 있다.

창단 이후 국·내외 초청공연, 기획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뛰어난 연주실력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230여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출신 단원은 예술단 활동을 통해 체득한 다양한 경험으로 음악계는 물론 사회 전반을 창의적으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신임 강한준 지휘자의 취임 음악회로 국악관현악단 전 단원이 타악 합주 난버벌 퍼포먼스를 여는 무대로 모듬북 협연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협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어린이

이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표현하는 공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꿈과 희망, 도전과 열정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음악적 소재와 결합하여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난버벌 퍼포먼스 '북장대소'를 시작으로 국악관현악 '축제', 모듬북 협주곡 '타', 관현악과 합창 '바람의 빛깔', '모두 다 꽃이야', 국악관현악 '신밧놀이' 등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첫 무대 창작타악 '북장대소'는 전통 장단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북과 장구가 가락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작품이다.

이어서 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는 우리의 농악 장단 중에서 별달거리 장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별달거리 장단이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정한 테마속에서 악기마다 주고받는 솔로와 즉흥적인 연주가 신명 나게 펼쳐진다.

다음으로는 모듬북과 관현악의 협연곡으로 만들어진 '타'이 곡은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울리는 곡이다. 모듬북의 화려하고 힘 있는 소리가 국악관현악과 잘 융화되어 신명 나는 타악 한마당으로 꾸며질 예정

이다.

네 번째 무대는 국악관현악과 합창으로 '바람의 빛깔', '모두 다 꽃이야' 두 곡으로 '바람의 빛깔'은 애니메이션 포가혼타스 중에서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로 온 존 스미스가 포악탄 추장의 딸인 포카혼타스를 야만인이라고 부르자 포카혼타스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OST로 유명한 곡이며 우리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영화음악 중 하나이다. 다음 곡은 전통적인 선율이 스며있는 국악 동요 '모두 다 꽃이야'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가사 말을 국악관현악곡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국악관현악 '신밧놀이'로 리듬의 유희를 위한 놀이적 음악이다. 전통음악에서 흥과 신명을 일으키는 요소인 장단을 현대적 감각으로 정형화시켜 그 위에 경기 뱃노래의 선율을 테마로 구성된 작품이다. 리듬의 변화가 심하고 신선한 분위기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힘찬 기상을 연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공연은 만 6세 이상 관람가로 도민

을 위한 무료 공연이다. 티켓예매는 공연 일주일 전 오후 1시부터 '나루 컬처'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남은 좌석은 현장에서 배부, 선착순으로 받아 관람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화순군 함께 만들어 가는 농업인 교육! 2024년 수요조사 실시

화순군 맞춤형 교육을 위한 수요자 의견 수렴

화순군은 2024년도 농업인 교육과정 선정에 앞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9월 22일까지 5주간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를 한다.

농업인 교육은 화순군 대표 특화작목 정착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업인대학, 전문농업 기술교육, 정보화 교육, 드론 자격증 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 수요조사는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배너와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인상담소와 과학농성시설 등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수요조사를 통해 화순군민이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제17기 화순군 농업인대학 등 장기 교육과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단기 교육과정의 주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은 매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라며 "화순군 교육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영농활동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시작으로 드론 교육, 농업인대학 2개 과정 등 33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 중이며, 8월 현재 2,208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윤경호/기자



구례군 반달곰 씨름단의 씨름 시범과,

강진, 기초수급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늘리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대상 6.09% 인상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올해 대비 13.16%(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강진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모

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도 인상 폭인 5.47% 보다 0.62%포인트 더 올라 4인 기준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7년만에 상향됐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000원에서 2024년 71만 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김영미 강진군 주민복지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최빈

곤층의 생활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복지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등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호/기자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성촌 해변 연안 정화 활동 실시

해양폐기물 80여 톤 수거,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힘쓸 터

도초면사무소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 일대 3일간 도초면 우이도 성촌 해변 일대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그리고 지난 겨울내 북서계절풍에 의해 밀려온 해양폐기물 80여 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안 정화 활동에는 도초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도초지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도초분소 및 우이2구 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하고, 해양폐기물* 수거 전용 장비(트랙터 2대, 굴삭기 1)를 동원했다.

연안 정화 활동을 통해 수거된 해양폐기물의 성상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플라스틱은 주로 페트병(원산지: 중국, 한국, 일본), 병뚜껑, 중국산 폐부자(원형), 밧줄(어업용), 라이터 등이며, 스티로폼 파편은 주로 어업용 페스티로폼이었고, 그 외 초록색 유리부자(어업용)와 캔류, 가전제품(냉장고)도 발견됐다.

도초면 김재홍 면장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연안 환경을 비롯한 해양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상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을 보유한 보전 가치가 큰 우리 지역에 해양폐기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안 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강하고 빠르게! 심폐소생술, 준비된 '4분의 기적'

2023년 경상북도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18일 김천대학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상북도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식당에서 쓰러진 남성을 살려낸 20대, 승객의 생명을 구한 시내버스 기사, 마을회관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한 80대 할머니처럼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기부터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익히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몸의 심장 기능이 정지하면 온몸에 혈액과 산소 공급 역시 중단되고, 4분 이상 두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 시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회는 팀별로 심정지 상황을 가정한 연극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상황 재연부터 119 신고요청, 호흡 확인, 자동심장

충격기(AED) 사용 등을 제한시간 8분 내 수행하고 무대표현(30점), 심폐소생술(70점)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성주여자고등학교(이채은, 김세미, 서은채)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경상북도지사상)은 한일여자고등학교(김신희, 김혜린, 정주희)가 차지하는 등 총 6개 팀 19명이 수상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그간 우리는 크고 작은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의 강한 힘을 느껴왔으며, 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기술이 아닌 '용기'로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며, "경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심정지 환자를 마추했을 때 용기 내어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 MZ세대가 멘토로! 거꾸로! 해보는 '리버스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개최

대구 북구청은 8월 21일 오후 4시 대구 북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리버스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리버스 멘토링"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의 멘토링이 아닌 후배가 선배에게 최신 트렌드와 문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코칭하는 역방향 소통 방식으로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으며,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공직입문 5년 이내 MZ세대로 구성된 멘토 20명과 멘티 간부공무원 8명이 참석하여 밸런스게임과 MBTI공유 등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서로간 어색함을 떨치고 향후 리버스 멘토링 활동

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앞으로 각 팀별로 MZ세대의 여가, 문화,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자유주제와,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공통주제로 3개월간 활동할 예정으로, 각 팀에서 제안된 의견은 추후 북구 조직문화 개선 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리버스 멘토링과 같은 조직 내 소통창구의 다양화는 우리 북구의 혁신과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 활성화로 조직역량을 높이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문경시, 석탄을 캐던 갭도에서 시원한 '2023 은성탄광 달빛여행' 선풍적인 인기

문경시는 지난 8월 19일 토요일, 문경에코월드에서 광부와 함께하는 '2023 은성탄광 달빛여행' 네 번째 행사를 선보였다.

7월 29일부터 시작된 2023 은성탄광 달빛여행은 전국에서 60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했으며 특히, 뜨거운 더위를 피해 은성갭도 내에서 진행된 투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은성갭도 투어는 안전모를 지급받은 후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탄광의 역사와 석탄을 캐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꿈을 캐러 가는 길, 광부의 친구 등 실감 콘텐츠를 체험했다.

은성갭도는 석탄을 캐내기 위해 1963년 뚫은 실제 갭도로 1994년 은성광업소가 문을 닫기 전까지 사용됐으며 갭도의 깊이는 약 800m이고, 석탄을 캐내기 위해 파낸 갭도의 전체 길이는 무려 400km나 된다.

2023 은성탄광 달빛여행은 7월 29

일부터 시작해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9.30. / 10.14. 제외) 총 12회차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문경에코월드'를 검색해 예약할 수 있다.

김동현 관광진흥과장은 "문경에는 한여름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산과 계곡이 많이 있어 피서지로 제격이다."라며 "석탄을 캐던 은성탄광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주)에스티아이와 '전력반도체 소재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8.22. 14:00,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전력반도체 소재 기업 (주)에스티아이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22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에스티아이와 '전력반도체 소재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대표이사 등이 직접 참석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웨이퍼 국산화를 목표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기장 장안읍) 내 에스티아이(대구 달성군)의

전력반도체 소재(잉곳 성장, 웨이퍼) 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마련됐다.

에스티아이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 4만평 부지에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250명을 연차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첫 역외(대구) 투자 유치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리콘카바이드

(SiC) 전력반도체 소재(잉곳 성장, 웨이퍼) 국산화를 통한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 에스티아이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 지원

(에스티아이) 부산 지역 내 사업장 시설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 인재 채용 노력, 지역 연관산업 발전 도모

한편, 시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국내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입주)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성공적인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협력기관과 추진단 구성, 연구개발, 기반 구축,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 중이며, 특화단지를 통해 국내 고성능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스티아이 관계자는 전 세

계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기차, 태양광 발전, 통신·우주·항공산업 등 전반에서 전력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소재 공급 부족에 대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소재를 전략물자화 하고 있다며,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를 통해 전력반도체 소재(웨이퍼) 국산화 및 국내 공급망 확보, 나아가 실리콘카바이드(SiC) 소재(웨이퍼) 세계 시장의 10%를 공급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첫 투자유치 성과이자, 단지 내 최초 소재(웨이퍼) 생산시설 건립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의 취약 분야인 소재(웨이퍼) 국산화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완성하고, 나아가 부산이 명실공히 국내 전력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2023 한국새농민회 경상북도 한마음 전진대회 청송군에서 성황리 개최



청송군은 새농민회 경북도회에서 주최한 2023 경상북도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가 지난 8월 18일 청송군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진정한 리더로서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새농민회 경북도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 다짐과 회원 단합을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윤경희 청송군수,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안석 한국새농민회 중앙회장,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 윤성훈 농업 경북지역본부장, 새농민 회원

등 1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새농민 회원에 대한 표창,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내빈 축사,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정시창 회장은 대회사에서 "급변하는 농업여건 속에서 지역을 선도하는 새농민회가 되자"며 "우리의 뿌리인 농업을 발전시키며, 농업인의 실익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황경광 청송군새농민회 회장은 "지역소멸 위기와 인건비, 농자재비 상승, 어려운 농업·농촌

의 현실을 함께 극복하고 하루 동안이라도 영농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준비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이 존경받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핵심 동력원으로서의 새농민회가 되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청송군은 경북농업대전환과 발맞추어 청송과수 농업혁신을 이룰 것이며 경상북도 새농민회도 농업발전엔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단계 소액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

영양군(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는 8월 18일 오후 2시 영양군 소회의실(2층)에서 23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18개 예비엑션그룹의 액션그룹 전환 및 1단계 소액지원사업 건을 가결했다.

영양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별천지 영양"을 비전으로 지역의 유·무형자원과 민간조직(엑션그룹)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단에서는 1단계 소액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18개 그룹에 대하여 8. 4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조건부 승인 2팀을 포함하여 18개팀을 선정했으며, 이번 추진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모든 액션그룹당 300만원씩 총사업비 54백만원을 빠른 시일 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회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액션그룹별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회의비와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게 되며, 앞으로 우리군 5개면 권역별 유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액션그룹 지속 발굴로 보다 더 많은 액션그룹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김진진 추진단장은 "본 사업은 공동체 주도의



자립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액션그룹의 지속적인 교육 및 모임을 통해 2-3단계 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1단계 소액

지원사업이 본 사업의 디딤돌이 되어 최종 목표인 '민간조직의 완전 자립화' 달성을 통해 우리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7년 숙원' 영주댐 드디어 준공, 영주발전 '새역사' 쓴다

문화·건강·스포츠산업 아우르는 명품 관광댐 '우뚱'...관광개발, 환경보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 발전 도모

10만 영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주댐 준공이 드디어 이뤄졌다. 영주시는 22일 영주 다목적댐의 환경부 최종 준공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본댐이 완성된 지 7년 만에 이룬 성과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 이상 기후에 대비한 홍수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본댐이 조성됐으나 문화재 이전과 복원,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기관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왔다.

시는 그동안 승인이 늦어지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자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 조정 및 처리방안 확정 등 준공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서 '영주 다목적댐 준공'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박남서 영주시장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관계자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7년간의 표류 끝에 22일 최종적으로 준공인가가 고시되면서 영주시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댐 주변 지역을 치수 시설 외에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야간 경관을 위해 옴마루 공원 일대에 빛 조명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 파크를 조성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 투자심사 중인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 단지과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스포츠 콤플렉스,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수상 레포츠 시

설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해 영주댐 주변을 건강과 관광, 스포츠를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산면 번개들, 개산들 일대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댐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댐의 수변 자원을 활용한 경관 사업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댐 준공 승인 고시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영주시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전하고 "준공 과정에서 보여준 단합력을 바탕으로 영주시의 발전과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최종 승인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영주댐을 지역의 새로운 개발 거점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댐은 내성천과 낙동강이 모이는 합류점인 평면면 내성천 인근 유역면적 500km², 길이 400m, 높이 55.5m, 유효 저수 용량 1억 3800만 m³, 총저수용량 1억 8110만m³ 규모로 조성됐다.

댐 주변에는 국내 최장인 길이 51km의 순환도로와 수몰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3개소, 66세대), 영주댐 물문화관, 영주호 오토캠핑장, 전통문화 체험장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관계기관 회의 개최

채진원 신임 국제관계대사, 경주 유치를 위한 현안 및 준비사항 점검



경북도는 지난 18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채진원 신임 국제관계대사 주재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속하게 유치 추진 현안 사업 파악 및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14일 경북도에 부임한 채진원 신임 국제관계대사의 발빠

른 현장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 경주시, 경북 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4개 기관이 참석했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각 기관별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 △HICO 증.개축 및 각 숙박시설 준비현황 점검 △유치신청서 제작 △SNS 채널 및 서포터즈 운영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방안 등 개최도시 선정을 대비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 회의 후에는 보문단지 내 힐튼호텔, 한화리조트, 컨싱턴 리조트 등 숙박시설을 방문해 각국 정상 및 관계자들이 머무르는 숙박시설 준비사항과 향후 리모델링 계획을 중점 점검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앞으로 3개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 보고, APEC 정상

회의 유치를 위해 기관별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반드시 경주에 APEC 정상회의를 유치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졌다.

한편, APEC 정상회의는 미·중·일·러 4강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회의체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이 순회하며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 개최에 이어 2025년 다시 개최국이 되면서 개최 도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진원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앞으로 3개월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며 타 시도와 차별성 부각을 위해 경주만의 강점을 발굴하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유치 신청서에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유치 경쟁 도시보다 한발 앞서나갈 수 있도록 APEC 유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최지 선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어르신 이제 씩씩 실버카로 나들이 가세요!

봉화읍, 보행 어려움 겪는 어르신에 '실버카' 지원

봉화군 봉화읍은 18일 관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어르신 20명에게 보행보조기 '실버카'를 지원했다.

읍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보행상의 장애로 나들이에 제한받는 어르신이 많아 어르신의 이동편의성 증진으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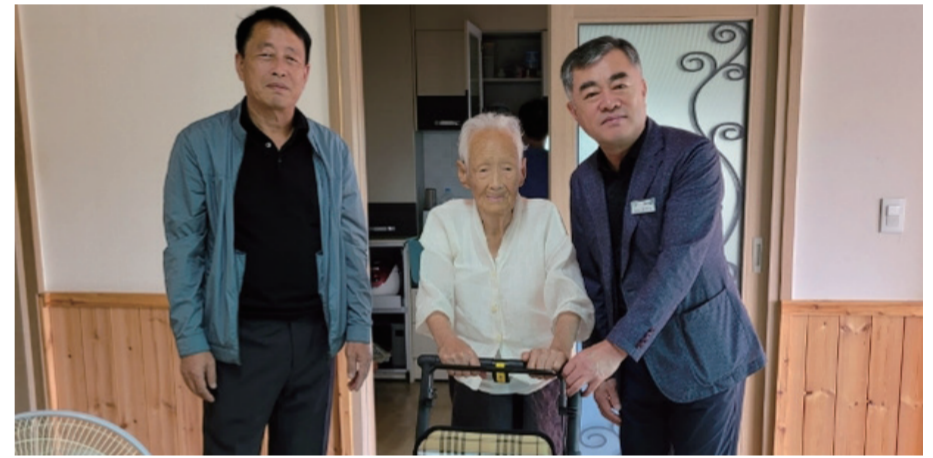
봉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대상자를 선정, 의결했으며, 직접 어르신을 찾아 전달했다.

해저리에 살고 있는 한 103세 어르신은 "고령으로 걸음이 불편해진

후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며 "실버카를 받았으니 수년 만에 보행보조기 '실버카'를 지원했다.

장말호 봉화읍장 및 황규태 민간인 의장(내성1리장)은 "앞으로도 봉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돼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팻월드, 영화 도그데이즈 오프닝 장소로 선정



의성군은 의성 팻월드에서 영화 '도그 데이즈' 오프닝 영상 촬영 장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화 '도그 데이즈'는 '영웅' '그것만이 내 세상'의 조연출이었던 김덕민 감독의 데뷔작이다. 출연진은 윤여정, 유해진, 김윤진, 정성화, 김서형, 이현우, 탐준상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본 촬영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오프닝촬영을 팻월드에서 하기로 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도그 데이즈' 오프닝 장면은 팻월드에서 반려견과 보호자의 교감을 한 컷, 한 컷 촬영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규모 반려견 테마파크 의성 팻월드에서 '도그 데이즈' 촬영날(9월 16일, 17일:대형견 입장일, 23일, 24일:중소형견 입장일) 입장 시 출연동의서를 작성하면 무료입장에 반려견과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화려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 한 장면에 반려견과 함께 출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영화 '도그 데이즈' 오프닝 영상 촬영 날 많은 반려인들이 의성 팻월드로 오셔서 반려견과 즐거운 추억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2023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단 성료

청년들의 시각에서 울진의 발전을 말하다

울진군은 지난 18일 행정체험단 학생들의 정책제안 발표를 끝으로 2023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학생 행정체험단은 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정보 조업무 수행과 더불어 청년들의 시각에서 느낀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까지 함께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행정체험단 학생 67명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서면심사 끝에 총 9건의 정책제안서가 현장심사 대상으로 채택이 됐고, 18일 간담회와 함께 5분 이내의 자유 발표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류굴 보물찾기(최우수상), 미래 울진을 위한 시내버스 추진(우수상), 울진 관광객유치 정책(우수상)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제안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는 "학생들이 제시해 준 다양한 정책제안은 면밀히 검토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한 여름밤의 음악회 성료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합창단 공동으로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 들려줘

경주시는 19일 보문수상공연장에서 열린 '2023년 경상북도 대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 5회차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어울림마당 행사는 경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 경주시청소년합창단과 공동으로 '한 여름밤의 음악회'라는 주제로 합동공연이 펼쳐졌으며, 지역 청소년동아리 체험부스와 청소년 동아리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과 청소년합창단의 맑은 목소리를 관객들에게 들려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경주시는 경북도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선정 돼 올 4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지역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진로 체험, 버스킹, e-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 청소년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응원하고 가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북도, '울릉군' 찾아가는 우수돌봄프로그램 운영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사업으로 우수돌봄 프로그램 보급·확산



경북도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울릉군을 방문해 유·아동 14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2023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2023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서·산간 지역에 우수돌봄프로그램을 보급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지역 간 불

균·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울릉군에는 우수돌봄프로그램 보급사업자로 선정된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 '어깨동무 씨동무', '더노크 교육연구소'가 참여했다.

숲과 사람은 '캠핑과 트리 클라이밍으로 만나는 숲'이라는 주제로 울릉 학포 야영장에서 1박 2일간 초등학생 40명

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체험으로는 캠핑요리, 트리 클라이밍, 목공체험, 야간 생태 관찰 및 별자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어깨동무 씨동무는 "찾돌버스(찾아가는 놀이 버스)"를 주제로 유·아동 84명을 4팀으로 나눠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무, 타이어 등 재활용 도구를 활용한 자유 놀이를 진행했다.

더노크 교육연구소는 "세상을 바꾸는 셸프 리더"를 주제로 DISC 성격유형검사, 자신만의 명함 제작 등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캠핑과 트리 클라이밍으로 만나는 숲에 참여한 양재은 어린이(울릉초, 4학년)는 "캠핑을 처음 해봤는데,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울릉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행복

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기쁘다. 우수한 돌봄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울릉군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하급속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경북형 아이돌봄 사업은 돌봄·교육의 기회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으로 찾아가 질 높은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며, 향후 돌봄 소외지역 없이 모든 지역에서 경북형 우수프로그램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돌봄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돌봄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해 경북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조선시대 노동절 '안동곶곶축제 개최' '고된 농사 잇고 풍성한 향연'

화합과 신명의 한마당

안동시 와룡면 주민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논밭을 매던 호미를 씻어 걸어두고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호미씻이, 백중(百中)놀이라고도 하며, 안동 지역에서는 '곶곶'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화합과 신명의 한마당이이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안동곶곶축제보존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안동곶곶축제가 25일(9시부터) 안동와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식전 공연인 풍년 농사 기원 및 문화예술공연을 시작으로 본행사에서는 공 튀기기, 고무신 던지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기며 화합의 시간은 갖는다. 특히, 어울한마당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리얼 노래자랑 대회도 개최해 주민들의

노래 실력도 뽐낸다.

또한, 부대행사로 농산물 할인판매, 일일 찻집, 떡메치기 체험과 와룡면의 특산물인 사과, 고구마, 마, 꿀, 자두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동곶곶축제는 2004년 안동 군자마을이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최초 개최되어 전국 유일의 곶곶축제로 명성을 알리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권영 안동곶곶축제보존회장은 "이번 제18회 안동곶곶축제가 고된 농사일로 힘겹게 달려온 모든 이에게 재충전의 날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신명을 나누고 화합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7개 해수욕장 일제 폐장... 피서객 20만명 성시

38일간 인명사고 Zero, 20일부로 일제 폐장

영덕군이 운영하는 7개 해수욕장이 7월 14일 개장 이후 38일간 이뤄진 한여름의 추억을 갈무리하고 지난 20일부로 일제히 폐장했다.

해당 기간 장사, 대진, 고래불, 남호, 하지, 오보, 경정 7곳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작년 대비 14.7% 늘어난 20만 8천여 명이었으며, 인명사고는 없었다.

영덕군은 올해 피서철을 맞아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 시설물을 정비했으며, 해수욕장마다의 특색을 살린 장사 해변라디오, 대진 썸머페스티벌, 고래불 비치사커대회 등 남녀노소 두루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수상 안전요원 능력 강화, 합동

인명 구조훈련 등의 협조체계 구축, 상어퇴치 그물망, 해파리 차단망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한편, 20일 폐장 이후에도 일주일간 수상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해 폐장에 따른 입수금지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다.

김동희 영덕부군수는 "지나해와 비교해 피서객이 증가했음에도 수상 안전요원의 노고와 피서객의 협조로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해수욕장 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성과와 노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이어가 우리 군을 찾은 모든 분이 행복한 추억만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부산박물관 8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부산스러운 밴드 2' 개최

8.25. 17:00 부산박물관 부산관 앞 야외 테크에서 대중음악과 재즈를 결합한 밴드 공연 진행

부산박물관은 오는 8월 25일 오후 5시, 부산박물관 부산관 앞 야외 테크에서 8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부산스러운 밴드 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의 익숙한 대중적인 음악과 감각적인 재즈 요소를 결합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무대로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 무대에 서는 '슬로우재즈그룹' 팀은 한음 한음을 정성스레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그룹 이름에 담았다.

이들은 재즈 음악에서 대중음악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

이며, 대중에게 재즈 음악을 더 가깝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연은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200명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우천 시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은 "막바지 여름날 공연을 찾는 시민들에게 상쾌한 문화공연을 선사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김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축제 개최!"

2023 청소년 어울림마당 "일취월장" High's Expo 선포식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8.19(토)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야외무대에서 청소년과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High's Expo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일취월장"

High's Expo는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 동아리 모집부터 홍보, 행사기획 등 행사 진행에 스스로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축제이다.

이날 행사는 공연에 앞서 10개 팀

동아리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로봇조립, 바이러스 무드등,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했다.

High's Expo 선포식은 청소년 대표의 개최 선포를 시작으로 연합 하늘빛 병창단, 김천여자고등학교 길라잡이, 김천고등학교 로고인 등 9개 동아리가 참여하여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밴드 및 댄스공연을 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쳤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평소에 학교에서 접하지 못했던 태양광 자동차나 무드등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을 해서 흥미로웠다. 그리고 무대 공연을 보면서 어떤 공연보다 멋있고 김천 청소년들이 자랑스러웠다."

라고 참가 소감을 이야기했다.

김경희 복지환경국장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오랫동안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 시간만큼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무거운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껏 청소년만의 시간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앞으로 9.16(토) 강변공원, 10.28(토) 안산공원, 11.18(토) 울곡도서관(울곡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참여 문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054)431-2009번으로 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청송군, 2023 사회조사 실시

청송군은 오는 8월 24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2023년 경상북도 및 청송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군민의 사회적 관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여 균형 발전 및 복지시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조사는 1997년부터 매년 실시되어왔으며, 올해는 지역 내 표본으로 선정된 6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본 조사는 표본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항목은 전체 45개 항목으로 경북도 22개 시·군 공통항목 40개와 청송군 특성항목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송군은 대면 면접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요령 및 주의사항 등 기타 안전 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또한,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회조사는 군민의 생활 모습과 의식변화, 복지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구민 안전에 과함은 없다. 노원, 들레길 현장 점검하고 4대 안전대책 수립해 즉시 시행키로

노원경찰서에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안전확보대책 마련 건의할 것을 요청

서울 노원구가 21일 오전 불암산 들레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내 공원과 들레길 안전을 위한 4대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치안 공백 축소 및 '실시간' 현장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인력 확충 및 장비 보강을 골자로 한 포괄적 예방 대책으로, 지역사회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모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력의 대폭 증원이다. 그간 구는 심야 시간 다중 이용이 활발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보안관을 배치해 구민 안전을 살폈다. 구는 이번 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10명으로 구성된 보안관을 최대 60명으로 늘리고, 주요 근린공원 외에도 등산로 및 들레길에 대한 낮시간대 인력을 추가 배치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 안전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는 만큼,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인력으로만 채용할 계획이다.

보안 구역과 활동 시간대 역시 세분화해 각각 공원보안관(20명), 들레길보안관(40명)으로 배치한다. 기존 심야 시간대에 집중 활동하는 공원보안관과 달리 들레길보안관의 경우 일출부터 일몰 시간대까지 2조 2교대로 순찰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우리동네 보안관(20명)을 추가 배치하여 동별 안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상시 순찰을 진행한다. 구는 빈틈없는 순찰을 통해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범죄 예방 장비 확충에도 힘쓴다. 들레길, 산책길이 새로운 우범지대로 떠오른 만큼, 산불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형 CCTV 외에 지능형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상 분석을 통해 즉각적인 대

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대상지가 선정되면 필요예산 확보를 계획한다. 다만, 전기와 통신선 설치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또한 경보음 발생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수락산과 불암산 들레길 실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감지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추후 드론을 추가 구매해 순찰 범위를 초안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나, 군 부대 주둔으로 영축산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호신용품 대여 서비스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동 주민센터에서 여성 및 안전 취약 계층에게 스프레이,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대여할 예정이며, 물품 및 대여기간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한편, 구는 21일 오전 노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암산 들레길 방범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구정장이 나서서 구의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는 든든한 모습에 우리 경찰들도 힘을 얻는다"는 이승열 노원경찰서장의 말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좀 과할 정도여야 한다"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서울 전체 들레길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강력범죄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치밀하며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및 구조적 안정성 점검

건설 현장 20곳 안전 확인...내달 18일까지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직접 살필 것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시는 지역 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도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안전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3개 부문 6개 항목을 꼼꼼하게 살폈다.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15개 현장을 중심으로 철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사가 완료됐거나 지반을 메우는 토공사 중인 5곳의 현장도 설계도서를 면밀히 살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7년 이후 무량판구조 채택 전국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이 공법으로 지어진 지역 내 공동주택은 총 19곳이다.

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토교통부의 무량판구조 채택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참여해 지하 주차장과 거주동, 공용 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직접 살필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이달 초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함께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배근 적합성과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를 우선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배근 설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며 "공동주택 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영등포구, 구민 생활 안전 지킨다...안심택배함 운영과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안심택배함 12개소, 365일 24시간 운영...48시간 무료 이용



영등포구가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택배함 운영'과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서비스'에 팔을 걷어붙였다.

'안심택배함'은 낯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무인 보관함을 통해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렵거나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안심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안심택배함은 ▲당산1동 그린케어센터 ▲신길5동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대림3동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신길1동 주민센터 ▲도림동 주민센터 등 총 12개소이다.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등 주민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안심택배함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택배 수령지를 '안심택배함' 주소로 요청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안심택배함에 물품을 배송하고 택배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수령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수령자는 인증번호를 안심택배함에 입력해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안심택배함은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요금은 48시간 동안 무료이며, 48시간이 초과하면 하루에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안심택배함 위치, 이용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분야별복지>여성복지>안심택배함), 안심이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 점검기

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중화장실 소유자나 시설 관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서비스 장소도 기존의 영등포구청(보육지원과), 동주민센터(영등포본동, 대림2동) 3개소에서 동주민센터(▲영등포동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6동) 5개소가 추가돼 8개소로 확대된다.

영등포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5일간 무료로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유선으로 기기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지킴이 집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 앱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강원특별자치도, 체류형 생활인구 증진 위 고향올래(GO鄉ALL來) 공모사업 4개소 선정

신청지역 4개소(춘천, 평창, 정선, 인제) 전원 선정, 국비 20억 원 확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체류형 생활인구 증진을 위해 추진한 '고향올래(GO鄉ALL來)사업' 공모 결과, 도내 4개 지자체(춘천시,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총 2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사전컨설팅, 관련 부처 방문, 설득 등을 통하여 신청지역 모두 선정되는 기업을 토론했다.

춘천시는 '두 지역 살아보기', 평창군은 '워케이션', 정선군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인제군은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분야에 선정되어 각각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다. 김권중 도 균형발전과장은 "도는 이번에 선정된 4개소를 비롯하여 체류형 생활인구의 적극적인 도내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유입된 인구가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적극 홍보해 달라"

김 지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담회서 "어렵게 마련한 만큼 모두가 혜택 받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이 도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21일 도청 외부견선실에서 김지사를 비롯해 김문의 충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적무대행), 김효열(사)충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정제의 전국상인연합회 충남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자차액 보전과 대출금 상환유예 등 1조 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기존 3000억원에 5000억원으로 늘리고, 연 3.3%의 이자를 도가 지원하는 등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홍보 등을 실시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여전히 지원대책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전례없는 금융지원인 만큼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서 적극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각 단체는 △소상공인 법률 및 교육 지원 △소상공인 사기 진작 △전통시장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소상공인 법률 자문 지원 연계 및 민간 표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27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난 3월 △판로 △경영·시설 △수출 △고용 △농업 6개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했다.

중점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취약계층·골목상권 자금 지원 △위기기업중

급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소액 금융 지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희망재기사업 △신규 고용 창출 △농업부

문 유류대·전기요금 인상분 등이다. 최정환/기자

아산시, "젊은이여, '청년의 날'엔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로!"

'2023 아트밸리 아산 영페스타(YOUNG FESTA)' 개최

아산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6일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2023 아트밸리 아산 영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

'청년의 날'은 지난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아산 청년의 날' 행사 '영페스타'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청년이 직접 기획·주도해 함께 즐기는 축제다.

올해 '영페스타'는 '청년 맘대로, 아산을 재밹게'라는 슬로건으로 아산시 청년센터인 청년아지트 나와유, 아산시 청년위원회, 순천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충남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특히 축제장을 △웨이브랜드(WAVE LAND) △플레이랜드(PLAY LAND) △매직랜드(MAGIC LAND) △푸드랜드(FOOD LAND) 등 주제별로 구역을 나눠 참여형 축제로 진행한다.

주 무대가 위치한 웨이브랜드에서는

△K-POP 댄스 △뮤직페스타 △애니 OST 콘서트 △치어리딩 공연 △초대 가수 공연(여성 듀오 인디밴드 '제이레빗', 록 밴드 '바비핀스', 'DJ SEFO'의 EDM 파티 등)이 펼쳐진다.

체험 행사와 게임 프로그램이 마련된 플레이랜드에서는 △20·30세대 추억의 게임 부스 △유행이 가득한 체험 부스 △지역 청년 공방의 핸드메이드 제품이 있는 플라마켓 △청년정책 홍보관 등의 문화 콘텐츠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그 밖에도 매직랜드에서는 △별볼쇼 △버블쇼 △피크닉 존 등이, 푸드랜드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아산시 대표 청년참여기구인 '아산시 청년위원회'가 함께한 결과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영페스타'에서의 다채로운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젊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흥타령쌀 활용한 수제 맥주 제조 교육 성료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우리 쌀 기반으로 한 가공창업활동 지원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쌀을 기반으로 한 가공창업 활동인 '흥타령쌀 활용 수제맥주 제조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아이홈주공방 김용현 대표와 서원형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난달 19일부터 4회차에 걸쳐 기초 맥주와 상용 맥주에 대한 이론교육과 흥타령쌀을 활용한 페일에일, 스타우트, 바이젠 등 3종 수제 맥주 제조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쌀을 활

용해 전통주뿐만 아니라 맥주도 제조하는 방법을 알게 돼 활용범위가 넓어졌다"며 "쌀을 활용한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중윤 소장은 "우리 쌀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이 활성화돼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우리 쌀을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을 개설해 농가 소득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은하수부터 토성까지, 밤하늘 가득한 별들의 향연...2023 태백은하수축제 성황리에 마쳐

태백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해발 1,330m 태백선수촌에서 개최한 '2023 태백은하수축제'를 약 6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은하수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건너기, 견우성·직녀성 찾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 공연, 작은음악회, 은하수 포토존과 은하수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제훈 작가가 들려주는 은하수 이야기와 이요한 교수(별빛꽃돌과 학관)의 별과 천체에 관한 강연으로 더 알차고 만족도 높은 행사가 됐다. 전국 각지에서 별과 은하수를 보러온 참여자들은 빈백과 돛자리 등에 누워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은하수를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등 축제를 한껏 즐겼다.

서울에서 온 40대 참여자는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라고 후기를 전했으며, 수원에서 온 참여자 또한 "즐거움 행사 덕에 가족 모두 좋은 추억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하수 축제는 사전참가자 모집 당시 800명 모집에 3,032명(외지인 90%)이 응모하여 조기마감 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태백시는 열대야 없고, 7~8월 평균 기온이 23도인 고원 기후의 특성과 빗공해가 낮은 청정도시, 차로 고지대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태백을 은하수 여행지로 도시브랜딩 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내년부터는 은하수축제를 좀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전국에서 사랑받는 여름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착공식 개최

원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구 캠프 부지(태장동 1191번지)에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국내 최초의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이자 과기부 공모 국내 1호 전문관으로, 국비 244억 원 등 총 4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부지면적 24,000㎡, 연면적 7,005㎡, 전시면적 2,833㎡ 지상 3층 구

도로 건립된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2021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도, 원주시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 추진되어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생명·의료 과학 분야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분야 과학관으로서 차별

화된 과학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국내 최초의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이자 과기부 공모 국내 1호 전문과학관으로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원주뿐만 아니라, 중부내륙권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에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관 건립과 함께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프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교육·문화·관

광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유튜브 영구네 "구독 하셨나요" 영등포구, MZ잡기에 나서

뮤지컬 스타가 직접 출연한 '영등포 한 달 살기'로 MZ세대 사로잡아



영등포구가 유튜브 공식 채널인 '영구네'의 이색 콘텐츠를 통한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그간 구의 유튜브 공식 채널인 '영구네'는 구독자가 1만 1천여 명으로 서울 시 25개 자치구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영등포tv'와 '영구네'로 이원화된 유튜브 채널을 '영구네'로 통합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구네 막터뷰' ▲전문 우주 강연을 펼치는 '코스모스(COSMOS)'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영구네 일기'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영등포' 등이다.

지난 7월부터는 뮤지컬계의 떠오르는 스타 이주순 배우와 손잡고 '영등포 한 달 살기'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배우가 직접 출연하여 숙소 구하기, 한강 피크닉, 문래창작촌과 대림동 탐방 등 영등포만의 다양한 관광 매력과 콘텐츠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향후 구는 MZ세대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브이로그, 짧은 영상(숏폼) 등 다양한 개성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와의 소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보내주는 관심에 보답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구독.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8월 22일까지 '영구네' 구독 인증을 하고, '막터뷰' 영상 시청 후 감상평과 응원 댓글을 남기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의 다양한 매력과 소식을 전하는 영구네 채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초서 인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관리사 모두 94% 이상 '만족'

'20년 전국 지자체 최초 실행...지난 19일부터 새달 9일까지 50명 대상 기본교육 진행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 중인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산모와 건강관리사 모두 94%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는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에서 개발해 운영 중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증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어나도록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지원 중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 98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구에서 인증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만족도는 94.4%로 일반 건강관리사 대비 2.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 간 인증제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 10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95%가 '만족'으로 답변해 높은 교육 품질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매주 토요일 보건소에서 교육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실무 관련 프로그램 외 건강관리사들의 힐링 프로그램을 더했다.

먼저 실무 관련 프로그램은 ▲산후 우울증의 이해와 예방 ▲모유수유 이론 및 실습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건강관리사

의 역할과 윤리 ▲산모의 불만사항 사례와 지나친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공감과 힐링'을 주제로 ▲와인 인문학 ▲산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품격있는 매너 ▲스트레칭 및 요가 강좌를 신설해 건강관리사에게 색다른 경험과 함께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다.

대상은 지역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건강관리사 50명이며 총 4회에 걸쳐 30시간의 인증 교육을 한다.

지난 19일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교육에 참석한 한 건강관리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실무에 꼭 필요한 꿀팁도 알려주고 구에서 전문 건강관리사로 인증도 해주니 자부심을 느낀다. 교육 내용을 토대로 더욱 책임감 있게 산모와 아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기본교육과 함께 2020년부터 작년까지 인증받은 건강관리사 95명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11월 중 진행한다. 또, 인증 건강관리사를 내후년까지 1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산모와 건강관리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를 더욱 발전시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서대문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생계 위기 주민 지원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 등

서대문구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신속히 생활비를 지원해 긴급상황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중위소득 120% 이내의 가구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 원 등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최근 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재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지원사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어려운 주민 분들이 긴급한 생계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어머니 품장홍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23

2023. 9. 8.(금) - 9. 14.(목) / 7일간 /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주최

전라남도
JeollaNamdo

주관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경북교육청,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

경찰과 비상대응팀 구성해 특이민원 발생 가정한 모의 훈련 실시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을 가정한 '하반기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갈수록 흉포화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하고, 교육수요자의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동경찰서 풍천파출소 경찰관과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안동경찰서 상황실과 직접 연결된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민원인 진정 유도, 경찰 신고와 출동, 녹화·녹음 실시, 민원공무원 보호, 상황 보고 등 행정안

전부 특이민원 단계별 행동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 상반기 모의 훈련 결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군교육지원청도 모의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장의 비상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와 민원실을 방문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광주광역시 교육청,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광주양동초 아지트사업 우수상 선정

광주시교육청이 '2022 학생중심 공간혁신 아지트 광주양동초 공간조성사업'으로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양동초 아지트 공간 조성 사업'은 지난 3월 중공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에 출품된 사업이다. 이후 최종 심사작으로 선정돼 현장실사 및 국민참여심사를 거쳐 '사업부분' 작품 11개 작품 중 우수상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사용자 참여 디자인 과정을 통해 학교 공간전문가와 교육공동체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미래 교육 운영 방향에 맞춰 학교 공간을 구

성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학교 구성원의 주도적인 설계 참여로 학습과 놀이,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학교 유휴 공간을 재구조화했다.

광주시교육청 시설과 윤정일 과장은 "학생 중심 공간혁신 아지트 사업은 많은 구성원의 노력과 함께했다. 이런 노력이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우수상 수상이란 결실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설사업을 통해 내실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27일 서울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경북교육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찾아라!

적극행정 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북교육청 내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 성과를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례는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등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성과를 발굴한다.

참가 자격은 경북교육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며, 9월 8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해 자체 검증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1월 중 최종 6건 내외의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혁신적인 공무원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천시교육청, 인천관광공사와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관광공사와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성훈 교육감,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지역의 관광을 총괄하며,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청소년교류단체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수학여행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교육'을 강화하며 '학생 국제교류 매년 10,000명 실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청-공사 간 교육 교류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협력 ▶초·중등학교 간 자매결연 등 학교 간 교육 교류를 위한 지원

협력 ▶교육교류-수학여행 등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양 기관의 체계적 협업을 통해 인천-해외 학생 간의 교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계시민성과 글로벌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부산교육청, 바람직한 양육 돕는 학부모 행복학교 7기 운영

아들 훈육 노하우,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 지도 방법 등 알려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한 '학부모 행복학교 7기' 연수를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1차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남구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최민준 아들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와 '뜻대로 안되는 자녀, 따라만 하면 반드시 효과 보는 코칭법'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

아들 양육 전문가로 알려진 최민준 대표는 교육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토

대로 아들 훈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 알려준다.

2차시는 9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교육연구정보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박원주 전문강사와 김희경 행복한부모마음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와 자녀 영어학습법과 스마트폰 과의존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방법에 대해 각각 알려준다.

참가 희망자는 8월 23일 오전 10시

부터 학부모지원포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지원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준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자녀의 바른 인성과 학력 신장을 위한 바람직한 양육 노하우를 배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달서구, '청년창업 지원사업 확대'

청년창업 STAR기업 탐방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8일 청년창업가와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청년 30여명과 함께 성공한 청년창업 기업을 탐방해 보는 '청년창업 STAR기업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STAR기업 탐방은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창업을 꿈꾸는 지역 청년들과 안정적인 창업정착을 희망하는 초기창업자들이 성공한 청년창업 모델이 되는 창업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18일 오전에는 성서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분리막 설비 기술을 개발한 이차전지 기업인 (주)티씨엠에스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천연재료를 이용한 건강요료제품을 생산하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주)프레쉬벨을 방문했다. 탐방에서는 기업소개, 창업자와의 간담회, 산업체 견학 등 창업 현장의 생생함을 청년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성공창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성장 지원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창업아카데미, 맞춤형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디자인·패키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선배초청 특강, 우수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달서구는 주민들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등 세대별 분야별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입주공간 무상제공, 전문 컨설팅, 사업화, 네트워크 지원 등 맞춤형으로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청년창업 STAR기업 탐방'을 통해 실

전창업 노하우도 배우고, 자신만의 창업 비전도 설계해 보면서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성공적인 청년창업가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발전 위해 손맞잡아

총84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대전)에서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서에는 4개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공동 조성, 강원-전북 지역 및 물(水)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조성 중인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지자체·공공기관이 출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동남권(울산·경남), 강원·전북, 대구·광주·제주권)에 조성된다.

'25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60억원, 전라북도 75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원, 모태펀드가 294억원을 출자하여 588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고, 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는 84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국벤처투자 출자공고로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사로 안다시아벤처스, 소풍벤처스가 선정됐으며, '25년까지 4개의 자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1년 조성하여 운영 중인 '강원형 벤처펀드'에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더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출자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창업→투자→성장→회사→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원영/기자

구미역 복합문화거점공간 Ground9 조성사업'본격 추진

행안부 주관, 고향올래(GO郷 ALL來) 공모사업 선정

구미시가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생활인구(주민등록자 및 통근, 통학, 관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를 유입해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6가지 시책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희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위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역 특화형 사업인 '구미역 복합문화거점공간 Ground9'은 장기간 공실이 지속된 구미역을 활용한다. 명칭에 'Greet(환영하다)-Round(모이다)-in 9(구미)'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위케이션 업무공간-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지난 3월 청년기본법상 명문화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1층에 마련해 국정과제에 최초로 반영된 청년 정책 기조를 뒷받침한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인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이 시장 혁신의 주역으로 거듭날 토대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역사 2층은 행안부 2023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스물웨딩테마 북카페 '결혼스토리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지난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 8월 서면 심사를 통과해 현장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 조정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미역 일대가 새롭게 개편된다. 시는 역후 지하주차장을 10년 만에 재정비·개방(총 266면 확보)했으며, 이달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시행되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타워주차장의 주차 규모를 43면 확장(기존 319면 → 완료 후 362면)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한다. 역사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구미역이 지역의 활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의 발전에는 청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구미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구미시가 인구 유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산청군,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70억원 규모...2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육성자금은 2023년도 하반기 70억원 규모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12억원)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58억원) 등 두 가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다.

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의 경우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하거나 방문해 상담일정을 잡으면 된다. 신용·담보대출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다.

대출은 기간 내 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을 시 연장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청 지역경제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은 최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해 기업 부담 경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예천_회룡포

예천_곤충생태원

예천_강물화전시관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79,848개
yecheonun #육지안의섬 #뽕뽕다리 #트래킹

좋아요 89,719개
yecheon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좋아요 69,752개
yecheon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좋아요 82,134개
yecheon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공중도시 예천

Everywhere Green Life, H₂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GAS KOREA GAS CORPORATION